

건축구조 분리 '건축법 개정안'에 건축계 한목소리로 반대 성명서 발표

11월 초, 법안 철회 촉구 건축계 기자회견·공동성명서 발표 예정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 사전 협의 없이 법안 발의 비판 건축과 구조, 설계과정서 상호 반복적 확인·수정 필요해 분리 불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계 의견을 모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건축구조 분리 건축법 개정안에 관한 반대 공동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표명한다. 건축계의 의견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면서 건축 설계비 현실화와 건축안전 확보 등 건축사업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게 의무가입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라 할 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정정책처에 따르

면, 협회는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과 함께 11월 초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축분야 상호협력 시스템 붕괴 ▲건축과 구조는 설계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복적인 상호 수정 및 확인이 필요한 업무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 주무부처인

국도교통부와 관련 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건축과 구조업무가 분리될 경우 설계·감리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상호협력시스템이 붕괴된다”면서 “이로 인해 상호 업무 이해 부족으로 건축물 품질 확보가 어려워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힘줘 말했다. 법안과 관련해 현재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협회에 따르면, 실제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681개)는 건축사사무소(1만 6134개)의 약 2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수도권에 밀집돼 법

▶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건축계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

- ▶ **건축설계는 구조설계가 포함된 일체, 분리 불가**
- 건축과 구조는 실시설계, 착공 이후 설계변경 등에서 반복적인 상호 수정 및 확인 필요, 건축사가 제대로 건축설계 업무 수행할 수 없어
- ▶ **건축분야 상호협력 시스템 붕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
- 건축과 구조업무가 분리될 경우 설계·감리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 강제되지 않아 상호협력 시스템 붕괴, 상호 업무 이해 부족으로 건축물 품질 확보 어려워
- ▶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법안 작동 불가**
-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681개)는 건축사사무소(1만6134개)의 약 23분의 1에 불과, 그마저도 수도권에 밀집돼 구조협력 지원 및 업무 불성실(현장 미방문 등) 야기

안 작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협력 지연과 현장 미방문 등 업무 불성실 수행으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건

축사가 부당하게 겪는 관행을 포함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건축사업계 의견과 입장을 적극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호 기자

건축문화 전승, 세대와 세대 연결 '건축영상아카이빙' 사업 추진

최근 김종성 선생 강연 등 원로 건축사·건축인 영상 기록해 건축문화자료로 보관·활용



지난 10월 26일 한국 1세대 아키텍트로서 힐튼호텔 등을 설계한 김종성 선생이 '건축의 아름다움(건축의 인문학)'을 주제로 건축사회관에서 특별강연을 펼쳤다.

대한건축사협회가 한국 건축 한 시대를 함께 한 원로 건축사의 삶의 흔적과 기억들을 아카이빙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 건축문화의 전승과 함께 문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대와 세대를 연결한다는 취지다. 최근 협회는 한국 1세대 아키텍트로서 미스 반데어로에를 사사한 김종성 선생의 특별 강연을 열었다. 밀레

니엄 힐튼호텔, 서울역사박물관, SK 서린사옥을 설계하고 완성한 김종성 선생은 지난 10월 26일 2시간 동안 '건축의 아름다움(건축의 인문학)'을 주제로 주요작품을 설명하면서 후배 건축사 및 건축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건축사교육원 김향년 원장은 “원로 건축사, 건축인들에 대한 육성 인터뷰 영상 아카이브 기록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현시대에 적합한 정보전달 콘텐츠인 영상미디어를 활용하여 협회가 선후배 동료 건축사의 모습과 작품 이야기를 담고, 이를 필

요시 교육·강의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8월부터 '이달의 건축'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다. 건축 전문가와 함께 건축에 대한 오감과 디자인, 그리고 실제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영상물이다. 월간 건축사지도 내년부터 협회 유튜브를 통해 작품을 수록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작품 영상, 설계자 작품 소개와 인터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장영호 기자

인터뷰 Plus >> 3면



석정훈 본협회장 “의무가입 후 앞으로 3년 대단히 중요”
의무가입 건축사법에 따라 지난 8월 3일부터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수가 1만 6613명에 이르며, 개업 건축사가 빠짐없이 협회에 가입을 마쳐 의무가입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 의무가입 이후 협회의 과제는 무엇이며, 현재 협회가 추진 중인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석정훈 본협회장이 답했다.

혁신적 방재형 주차장 바닥 마감 시스템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방지

Dia QN-1000 System : 세라믹계 수용성 준불연 수지 / 바닥마감재

특허중

PMc 심그라미 :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해, 중성화, 발수 및 부식예방방지 외부 수성페인트
PMc-PUW 구름이 : 에폭시 번성 폴리우레탄수지계 방수공법
PMc-EPF 깔꼬미 : 우레탄 번성 에폭시수지계 바닥마감공법
PMc-PUA® : 에폭시 번성 폴리우레탄수지계 옥상방수용
PMc-PUA® : 에폭시 번성 폴리우레탄수지계 바닥마감용
PMc-PUA® : 에폭시 번성 폴리우레탄수지계 수처리구조물 방수용
PMc-PUA® : 친환경 폴리우레탄에폭시 미끄럼방지재

준불연 인증

- 준불연성**
• 화재로 인한 화염전파 방지효과 탁월 :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효과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인증
- 물리적 성능**
• 기존 용제형 제품 대비 탁월한 물리적 성능 발현
- 수용성 바인더와 무기나노물질의 점진적 커풀링 융화 반응**
• 시간 경과에 따른 획기적인 물리적 성능 향상
• 기존 수성 재료의 태생적인 물리적 성능의 한계를 극복
- 환경 친화성**
• 물을 용제로 사용 : 희석제(신너) 미사용
• 극 저취형 : 시공 중에 냄새 없음

적용부위

- 대형체육시설 주차장
- 공동주택주차장
- 대형마트,백화점,병원,호텔 주차장
- 물류창고

비교시험

- 일반용 에폭시
- Dia QN-1000 System

PMc (주)피엠씨 | www.pmc-eng.co.kr | (주)다이아몬드 |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35-1, 부성빌딩 3층 T. 042-585-6619 F. 585-2050 http://www.diacoat.co.kr/

‘2023 대한민국 건축의 날’ 기념행사…김종성 선생 동탑산업훈장 수훈

‘건축, 문화를 이끈다’ 주제로 열린송헌 녹지광장서 개최

석정훈 본협회장 “소통·상생으로 건축이 문화를 이끌어 나갈 것”

김종성 선생 “후배 건축인, 우리만의 건축문화 만들어 주길 희망”



김종성 선생이 제19회 건축의 날 유공자 포상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은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헌 녹지광장에서 ‘건축, 문화를 이끈다’라는 주제로 ‘2023 대한민국 건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축의 날’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건축물인 경복궁 창건일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지난 2005년부터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9월 25일 전후로 ‘건축의 날’을 기념해 오고 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건축의 날은 국민들에게 건축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건축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축사와 건축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게 활력과 영감을 더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조병수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의 ‘땅의 건축(서로에 대한 깨달음의 건축)’에 대한 특별강연이 이뤄졌다. 조병수 총감독은 “땅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메가스트럭처가 되어선 안될 것”이라며 “땅이 무어라 하는지를 잘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이에 잘 맞는 건축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평집’, ‘모집’, ‘땅집’,

‘명상집’ 등 작품을 소개하며 땅과 지형과의 관계성을 주목했던 다양한 상황들을 설명했다.

기조강연 이후 주요내외빈들이 참가한 가운데 본격적인 기념행사가 시작됐다. 한국건축단체연합 천의영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화를 이끌고 있는 건축의 역할에 대해 되짚었다. 천 회장은 “제19회 건축의 날 기념식은 건축의 공공적 측면은 물론, 문화적 측면을 함께 주목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그동안 건축은 산업적 측면에 비해 문화적 측면이 간과돼 온 것이 사실인데, 건축이 문화를 이끈다는 이번 행사의 주제처럼 건축이 가진 힘과, 역할이 재조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 공동회장인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역시 “건축이 문화를 이끌기보다 이끌려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문제다”라며 “건축계가 상생하고 화합하며 소통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건축이 문화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해 주신 유공자 여러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기념식 개최와 참가자들에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념식 개최를 축하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차관의 축사도 이어졌다. 먼저 권영걸 제7기 국건위 위원장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행정지원센터를 설립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건축 전문가들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을 건축단

체인합이 기획해 보는 건 어떨까”라며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문화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있기까지 건축계의 열정과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생태건축과 스마트 건축과 같은 시대적 요구에 건축인들의 지혜와 창의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건축이 문화를 이끄는 발판이 될 것이라 믿으며,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제도 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걸 국건위원장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지원 위한

공동행정지원센터 설립해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건축전문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계속해서 건축계 발전과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정부포상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김종성 선생(미국 건축사,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명예사장)이 수훈했다.

김종성 선생은 서울힐튼호텔, 육군사관학교 도서관, 서울대박물관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건축계에 족적을 남겼으며, 국내 건축설계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고,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

▶ 제19회 건축의 날 정부포상 등 수상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동탑산업 훈장	김종성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포장	정진국	한양대학교
대통령 표창	김준식	상명 건축사사무소
	유흥재	부운 건축사사무소
국무총리 표창	김종현	배재대학교
	고성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유재
	김경만	(주)기경 건축사사무소
	조서영	(주)서원 건축사사무소
	최창호	광운대학교
	황정복	예문건축사사무소
국토부장관 표창	김경훈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천의철	(주)건축사사무소 에스아이
	김현주	(주)엠에이에스건축사사무소
	권재희	(주) 목금토 건축사사무소
	박진호	안하대학교
	김강수	서울시립대학교
	최현기	경남대학교
	김재경	한양대학교
	이아영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태문	맥가 종합건축사사무소
국건위원장 표창	한광호	(주)산이앤씨 건축사사무소
	현상훈	이공일 건축사사무소
	오종열	(주)디자인그룹금성건축사사무소
	이공희	국민대학교
	전재우	하이퍼스탠드럴
	조종연	티지티코리아디자인그룹(주)
문체부장관 표창	강인수	(주)디에이그룹종합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김수경	엘엔케이건축사사무소
	김용대	(주)에이엔디 건축사사무소
	박종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원정연	고려대학교
	윤경희	(주)여의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받았다.

아울러 한양대학교 정진국 명예교수가 근정포장을, 김준식 건축사(상명 건축사사무소)와 유흥재 건축사(부운 건축사사무소), 김종현 배재대학교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고성천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유재), 김경만 건축사(주.기경 건축사사무소), 조서영 건축사(주.서원 건축사사무소), 황정복 건축사(예문 건축사사무

소), 최창호 광운대 교수가 수상했다.

김종성 선생은 “건축실무에 나선지 60년이 조금 넘었는데, 형태 만들기에 급급했던 건축이 이제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후배 건축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못했던 몫을 해주길 바라고, 정진하고 또 정진해 우리나라의 색깔있는 건축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관희 기자

2023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건축의 공공성 등 건축의 가치 ‘재조명’

건축물(공공/민간/주택)·건축문화진흥·학생설계 부문 등 총 45명 수상



수상자들이 주요 내빈과 함께 기념촬영에 임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2023 한국 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울시 소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2023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의 공동설계자이자 올해 주택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중앙대학교 윤승현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건축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건

축의 역할을 조명한 윤승현 교수는 “많은 상처가 있던 땅이었는데, 이곳에 박물관을 지어 따뜻한 현대의 장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런 장소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런 면에서 건축이 중요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이

개회사를 통해 “건축은 시대정신을 담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인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으로 미래를 변화시키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건축사와 건축인들의 노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오늘 수상작들도 시대 건축이 추구하는 정신을 보여줬고, 수상한 학생들 작품 역시 바로 건축의 미래임을 잘 말해줬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꾸준히 발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K-건축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건축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사회공공적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사명과 공공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건축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면 앞으로도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건축문화 발전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장 조남호 건축사(주.솔토지빈 건축사사무소)는 심사결과보고에 이어 심사평을 밝혔다. 조 건축사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향이 건축적 해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그 성과가 지역과 사회에 긍정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가, 그 성과가 특수성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 가치를 가져 좋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가와 같이 올해 건축문화대상은 성찰적 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건축생산체계를 여는 작품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남호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을 끝으로 부문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상 4점,

국무총리상 4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상 1점, 국토교통부장관상 17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5점 등 31점에 대한 시상식 진행된 가운데, 건축물 부문 대상(대통령상)에는 사회공공부분 ‘펀그라운드 진집’(설계자 신호섭, 주.건축사사무소 신)이, 민간부분은 ‘콤포트 서울’(설계자 문주호, 주.경계없는작업실건축사사무소), 주택부분에는 ‘강화바람 언덕 협동조합주택’(설계자 송민준, 주.건축사사무소 인터카드,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본상에는 사회공공 부문에 ‘조치원 1927 아트센터’(설계자 홍경식,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민간 부문 ‘포레스트 에지’(설계자 김선형, 전남대학교), 주택 부문 ‘지산돌집’(설계자 임태형, 주.건축사사무소 플랜)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관희 기자

인터뷰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민간대가 법제화 없인 의무가입 목적 달성 못해 법개정 이룬 저력으로 민간대라도 속히 마무리해야

“의무가입이 완성됐지만, 민간 대가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의무 가입의 궁극적인 취지와 목적은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건축사법 개정 취지에 나와 있듯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 공인으로서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처럼 황폐하고 삭막한 환경에서 건축사가 과연 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회원들이 하나가 돼 불가능한 의무 가입도 이뤄낸 만큼, 민간대가 법제화 역시 반드시 실현하리라 믿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의무가입 법제화가 본격 시행된 것과 관련해 10월 2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대담=박정연 본지 편집국장

지난 8월 3일부터 대한건축사협회 미가입 건축사가 가입을 완료해 현재 협회의 회원 수가 1만6513명(10.19 기준), 가입률 98.18%에 이르며 사실상 의무가입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외형적으로는 건축사법 개정 후속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

석정훈 회장은 “앞으로 협회 설립 목적에 맞게 협회가 변화돼야 한다”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 만큼,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건축계를 선도해야 하며, 건축사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공인으로 인정받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건축사가 제대로 된 공적 역할 하려면
정당한 대가와
설계·감리업무에 대한
합당한 평가받는 것 전제돼야

협회는 10월 4일 민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추진한 민간 대가 마련 국회 입법을 본격화했다.

석정훈 회장은 “어려운 숙제지만, 그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검토한 끝에 민간대가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생겼고 국회 입법발의를 조율 중”이라며 “민간대가 법개정이 실현되지 않으면 안전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나 미래인재 육성, 그리고 K 건축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 민간대가가 건축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로부터 명분을 얻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 역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가입 건축사들이 빠짐 없이 가입함으로써 의무가입 1단계가 마무리된 상황에 대해 석정훈 회장은 “2단계로 민간대가 법개정이 속히 완료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회원들에게 건축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 대가라는 최소 기준이 만들어지면 회원 모두가 의무가입 틀 안에서 합의된 기준안을 지켜야 하고, 충실한 설계가 전제돼야 하기에 협회 자체적으로 ‘도서관토제’를 운영해 설계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LH 사태는 건축업계의 고질적인 저가수주 경쟁, 전문인력 부족, 감리독립성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촉발된 문제임에도 자칫 건축행위에 참여하는 실제 행위자들보다 처벌이 건축사에게 쏠릴 우려가 높다.

석정훈 회장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건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설계·감리 담당자의 책임만 추궁하는 상황이 반복될 뿐 안전하지 않고 품질 낮은 건축물이 왜 생기는지 LH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며 “건축물 안전 문제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계·감리업에 정당한 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LH 사태는 우리 건축사들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건축사가 제대로 된 공적 역할을 하려면 정당한 대가와 설계·감리 업무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전제돼야 함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아픈 부분을 드러내고 의무가입으로 건축사가 새롭게 거듭났음을 알리고 동시에 건축안전을 위해 건축사가 앞장서 전문가적 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의무가입 후 앞으로의 3년이 중요하다”며 “민간대와 같이 그간 건축사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노력부터 시작해서 건축사로서 겪는 부당한 관행들을 개선하고, 10년 뒤 오늘을 볼 때 의무가입을 실현한 협회는 지금 뭘 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회원분들께서도 희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미가입 건축사 협회 가입
완료해 가입률 98% 달성
앞으로의 3년이 중요
10년 뒤 의무가입 실현 협회는
지금 뭘 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해야
잃어버린 권리 찾는 노력부터
지정감리 확대,
신고건축물 감리제 도입 등
현안 하나하나 해결하고,
회원에 비전·희망 제시해야

리와 법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대국민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의무가입 목적·취지에 맞게끔 우리 건축사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LH 사태는 건축사가 하나가 돼 단합된 모습으로 힘을 보여주면서 왜곡된 시선을 바꾸고, 건축사의 목소리를 높

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설명이다. 언론에서는 감리 전반에 있어 큰 변화의 주도권을 둘러싼 관계자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고, 외부에선 건축사 업역 침해까지 시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협회는 결의대회를 추진, 광화문 집회 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여러 이유로 집회가 취소됐다.

◆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단체들과 공동성명서 발표
단호히 대처

석정훈 회장은 이런 혼란을 틈타 이뤄지는 타 업계의 업역침해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지난 9월 말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협회는 즉각 반대 의견을 정부·국회에 제출해 대응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 당국과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석정훈 회장은 법안이 발의된 직후 국회와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건축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공동성명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의무가입은 단순히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동안 현안에 수세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의무가입 이후에는 협회도 회원도 달라져야 한다. 건축사의 업역과 위상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하에 공세적인 대응으로 단호하게 맞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민간대가 법제화 외에도 감리자 독립성 보장을 위한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와 더불어 최근에는 건축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고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 논의를 시작하며 이를 위한 입법 작업에도 본격 돌입했다. 지난 9월 25일에는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감리자 독립성 확보를 위한 허가권자 지정감리제 확대 필요성과 감리업무 신뢰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감리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설계 의도 구현 활성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석정훈 회장은 마지막으로 의무가입을 이룬 현재 협회가 회원들의 생존권 및 권익을 위한 절박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 협회가 회원들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젊은 후배들이 건축사로서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무가입이 됐기 때문에 이전 핑계 달 게 없으므로 협회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의 3년이 대단히 중요하다.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민간대와 같이 그간 건축사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노력부터 시작해서 건축사가 겪는 부당한 관행들을 개선하고, 10년 뒤 오늘을 볼 때 의무가입을 실현한 협회는 지금 뭘 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회원분들께서도 희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리 장영호 기자

사 설

협회의 원동력은 회원의 동참

많은 건축사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협회에 의해 신속하게 개선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자주 살펴진다. 반대로 협회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볼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 과제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진 노력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진다면 회원들이 오해 없이 협회의 노력을 알아줄 수 있겠지만 다양한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 절차의 면면이 모두 공개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인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는 다른 전문가 단체와 비교되기도 한다. 다른 단체는 업무상 권리와 책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처하며 집회와 파업을 실시하는 등 단체의 권리를 사수하는데 반해 건축사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방식의 대처가 어렵다. 진행하던 업무와 많은 감리현장을 중단시키고 모든 건축사가 파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건축사의 업무가 국민의 안전과 생업, 재산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협회 내에서 추진되는 법규와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보다 신속하게 개선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추진 중인 단과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정리해서 많은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회원들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건축에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예로 들자면, 아직도 '설계사라는 호칭이 들리면 '건축사가 바른 호칭이라고 안내하고, 설계업무 대가는 사용승인 시가 아닌 도면작성과 허가단계가 완료되면 완납 받는 것이 맞다고 설명해야 한다. 또한 민간업무 대가가 정상화될 때까지, 업무대가와 업무량에 대해 원직을 설명해야 한다.

온갖 제도적인 불합리함, 법규 해석의 오류와 다양한 방식의 갑질, 적절하지 못한 대가와 과도한 책임 등 건축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이유들이 너무 많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협회에서 추진과제로 삼고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데, 협회는 이처럼 노력 중인 부분에 대해 회원들이 아쉬워하고만 있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한다. 이 내용들에 대해 캠페인을 진행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을 홍보하고 방법을 알려줬으면 한다.

또한 회원은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인지했다면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업에서 힘써야 한다. 각자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건축주, 시공사 등의 관계자에게 해당되는 내용 중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이유, 개선방향을 알려야 한다. 모든 회원들이 기다리기만 한다면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현업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회원들의 동참이 협회의 원동력이다.

시 론

BF 인증, 과도한 기간 소요와 자의적 해석으로 설계 현실화 어려워

얼마 전 사무실로 프로젝트 문의가 와서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다 건축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맡지 못하겠다고 한 일이 있었다. 용도변경을 포함한 대수선 문의였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프로젝트였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이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이번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몇 번 있었으나, 그때도 건축주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사항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개업 후 3년 정도 사무소를 운영하며 이런저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 시간이 흐르며 어느 정도 적응되기도 하고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 편의와 BF 인증에 관한 업무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나, 과도한 기간과 업무 기준에 대한 주관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늘 앓을 먹곤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고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민간 프로젝트 또한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수 시설을 설치하고 허가 시 관련 사항



이현택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태가

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인증업무를 할 때 보통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협의와 심의에 걸리는 시간의 문제다. 공공 프로젝트는 기한 안에 각종 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청 건수에 비해 인증기관이 적다 보니 접수부터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관련 법규에 따라 BF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LH,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등 8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인증 접수를 하고 심의를 거쳐 예비인증까지 받는데 통상 4~5개월 정도가 소요되기도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후 바로 접수하더라도 주어진 용역 기간 안에 인증을 완료하여 납품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공모 당선을 통해 공공 발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과업기간이 120일로 길지 않은 프로젝트로 허가 및 납품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공식적으로 용역 중지 중에 있다. 바로 BF 인증에 걸

리는 시간 때문이다. 공공 발주 용역은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발주처에서 BF 업무 기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용역 중지를 설득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BF 인증 기간으로 인한 리스크와 부담은 늘 건축사의 몫이다.

둘째는 심의와 협의에서 발생하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용에 관한 문제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나 BF 심의를 받다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협의 및 인증 과정에서 보완은 당연한 업무 중 하나이지만, 문제는 심의 의견이 늘 기준에 근거 또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관된 기준과 매뉴얼을 가지고 인증심사를 해야 함에도 심사위원마다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거나, 법과 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종종 이러한 사항이 건축사의 계획 의도와 상충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건축주가 되기 마련이다.

건축은 다양한 분야와 얽혀 있고, 여러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료되기까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문제가 다양한 만큼 정답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건축사의 주된 업무이자 역량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적법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 적어도 BF 인증과 같은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건축의 본질이 가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YOUR BEST DESIGN OPTION



공통구매 바로가기

Archicad는 IFC4 Export-Import 인증받은 소프트웨어입니다.
buildingSMART Certification



IFC와 완벽호환!

NEW

최고의 디자인 옵션, Archicad 27 출시!

(주) 아키소프트는 GRAPHISOFT 국내 공식 총판입니다.
 구매문의 02-6956-5298 hello@archisoft.co.kr | www.archisoft.co.kr

E&E 포럼 세미나, 젊은 엔지니어 유입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젊은 인재 유입·육성 위한 제도개선 절실”

과도한 덤핑 경쟁으로 산업구조 형성돼

대가 현실화 힘 실어야...산업인력 유출 막을 로드맵 시급



10월 31일 국회에서 '젊은 엔지니어 유입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협회가 산업발전과 공동 성장을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E&E 포럼이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난 10월 31일 열린 '젊은 엔지니어 유입과 성장기반 구축'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젊은 엔지니어의 유입과 성장 방안을 두고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됐다.

젊은 엔지니어 유입을 주제로 한

만큼 2030세대 엔지니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시간도 있었다. 이어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저임금, 근무여건 개선, 수직적 조직문화, 장애성 등 젊은 인재가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한수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속성과 실행력을

강조했다.

김한수 교수는 “그동안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특화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미흡했다”며 “노력의 흔적은 있지만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 만큼 지속적인

인재확보가 산업의 경쟁력

산업 자금심 회복하는 방안 더해

충분한 대가, 미래 비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필요

로 관심을 갖고 실행하기 위한 제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젊은 엔지니어 유입과 성장기반 구축’으로 한 산업계, 학계, 정부의 의견이 공유됐다.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박춘하

대표이사는 탈 건축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설계의 대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체 건축 수주의 90%에 달하는 민간수주의 경우 최소 설계 대가기준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과도한 덤핑 경쟁으로 인한 산업구조가 형성되다 보니 건축사 또한 저임금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이 건축을 전공한 학생들의 이탈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춘하 대표이사는 “개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 발주 사업처럼 건축사 업무의 대가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양대학교 안용환 교수는 학생들이 산업 진입을 기피하는 현상을 환기했다. 한국경제 심은지 기자도 “설계 엔지니어링 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젊은 인재 유입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도화엔지니어링 손영일 대표이사도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수직적 조직문화는 산업계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도 크다”며 “설계 엔지니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는 표현부터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이라는 말이 갑을관계를 연상시키며, 수직적 계약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성유경 연구원은 젊은 인재의 유입 부족은 전 산업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타 산업군 간의 경쟁이 불가피함을 상기시켰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김명준 과장은 “중요한 주제이지만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제”라며 “산업체계가 바뀐 만큼 건설업계도 미래 성장 방향에 맞춰 스마트하게 변화해 나가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조아라 기자

ZOOM IN - 모듈러 주택을 둘러싼 법적 쟁점

최근 13층 모듈러 주택 준공으로 상용화 기대감 확산...내화기준·공중별 분리발주, 법적 허들 완화 논의도 진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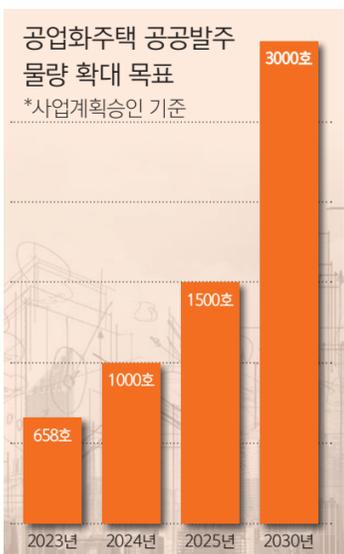
국토부, 올 8월 공업화 주택 로드맵 발표

2030년부터 모듈러 주택 연 3000가구 공공발주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 불분명한 상황

현행 법령상 공업화 주택은 건축사 설계·감리 제외 대상

정부 추진 ‘설계·감리 등 공업화인정 특례제도’ 관심 커져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13층 높이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경기행복주택) 사진=현대엔지니어링

난 8월 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공업화 주택 로드맵’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며 우선 공공 발주기관을 통해 2030년부터 연간 3000호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할 계획으로, 공사비 산정기준과 더불어 설계와 감리 등 공업화인정 특례제도와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를 모듈러주택에 맞게 개선한다.

모듈러 주택의 장점은 건축현장 인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공장 중심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사기간을 기존 건축방식 대비 평균 30%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90% 이상 재활

용 가능한 철골 구조 활용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44%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건축 생산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상 모듈러 공법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령은 아직 없는 상태다. 다만 주택법이 모듈러 공법으로 건축된 주택을 일정한 요건 하에 ‘공업화 주택’이라는 명칭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업화 주택 건축 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또는 공사감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사에 의한 설계, 감리 없이 건축이 가능하단 뜻이다.

국회에서도 모듈러주택 건축 지원을 위한 관련 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국회에선 주택법상 ‘공업화 주택’을 모듈러, PC, 패넬라이징 공법 등을 포괄하는 ‘사전제작 주택’으로 변경하고, ‘공업화 주택’의 인정 대상을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또한 모듈러주택의 저탄소·친환경성을 고려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국회 논의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 역시 출범한 상태다. 공공부문에서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민간부문에서

▶ 주택법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및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화장실·욕조 등 일부부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각각 참여했다.

모듈러 주택 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화기준 완화와 분리발주 의무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령상 13층 이상 건축물(일반시설 기준)의 경우에는 내력벽·보·기둥 등 주요 구조부가 3시간의 내화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모듈러주택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구조적으로 보와 기둥에 대한 뿔철을 하거나 방화석고 보드를 덧붙여서 내화 구조체를 만들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모듈러 건축 업계 관계자는 “건축 공법, 건축물의 특성 및 용도, 비상계단 배치 등을 고려해 내화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싼 가격과 법적 허들에 막혀 제반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공급은 차츰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용인시 기흥구에 국내 최고층인 13층 모듈러 공동주택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GH는 이어 25층짜리 모듈러 공동주택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모듈러 건축에 대해 분리발주 예외를 적용해 줘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높은 상황이다. 모듈러건축은 건축물의 기본골조와 전기배선, 배관, 단열 등을 공장에서 생산해 이를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현행법상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가 의무화돼 있어서다.

건축연구원 김용준 책임연구원은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가파른 성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규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영호 기자

국회 입법 동향

'9·26 주택공급 대책' 실행 위한 입법과제 산적...통합심의 내용 담은 주택법 등 개정해야

국회 계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등 공급 불확실성 해소 필요

정부는 지난 9월 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5년 동안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급대책에는 ▲3기 신도시 물량 확충을 비롯한 공공주택 및 단기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PF 여건과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 내용이 담겼다.

공공주택은 5만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며, 이중 3만 가구는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공원 녹지를 활용해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서는 약 5,000가구가 공급된다.

민간부문 공급을 위해서 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PF부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2조원 규모 PF 정상화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급감하고 있는 주택 건설 착공 현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를 개선해 공급 확대에 나서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입법과제가 있음을 인식했다. 때문에 당장은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공급 여건을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논의를 마지막으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이번 공급대책에는 새롭게 개정되어야 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주택사업 승인 통합심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건설공제조합 PF 모기지 보증신설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특별건축구역지정 절차 간소화와 전자적 의결 도입을 담은

정부, 신속한 주택 공급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하위법령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10월 17일과 18일 사이에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 예

▶ 주택공급 대책 입법 과제

법안	내용
주택법	주택사업 승인 통합심의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제조합 PF 모기지 보증 신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특별건축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고했다.

우선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10월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해 한시로 완화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같은 날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4분의 3 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신탁방식 사업추진 시 토지신탁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과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입법예고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어 있지만,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전에도 시행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지자체&건축

도시문제 해결, 공간 재설계...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만드는 새로운 도시

스마트시티 거점 조성에 국비 200억 원 투입

하루 평균 이용자 10명도 안되는 사업도 有 “질적 성장 필요”

“올 3차 사업 완료, 지역 도시·사회문제 해결 개선 방안 도출돼야”



스마트시티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전경 사진=뉴스1

건축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현상에 따라 불확실성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오늘날 건축이 우리나라의 강점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적극 도입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실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스마트화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와 같은 2개의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주도의 스마트시티 전국 확산을 위해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에는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전남 해남군, 강원 횡성군이 선정됐고,

올해는 5:1의 경쟁을 뚫고 울산광역시와 경기 고양시가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경쟁력 제고와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 조성을 위해 3년간 국비 200억 원이 지원된다.

스마트시티 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1차 계획이 시행됐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국가 스마트시티 계획을 담당했다. 3차 종합계획에 들어서는 이름이 스마트도시로 바뀐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적 스마트도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 용인시 스마트도시계획(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비롯해 화성시, 원주시, 오산시 등에서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는 스마트도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조직, 2022년 기준 광역지자체 18개, 기초지자체 117개가 참여해 스마트도시의 확산과 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 및 국가시범 사업들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 방향은 기존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더해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하는 형태다. 일례로 기존 도시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면 도로를 확장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지능형 신호체계를 도입하고, 차량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지자체의 경우 기존에는 경찰력을 확대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 실시간 CCTV, CPTED 도입을 확대한다. 마찬가지로 도시에 사람이 모여들어 전기에너지 소비가 늘어났을 경우, 기존 도시가 화력발전소를 증설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스마트시티는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 예산 확보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 부풀리기 주목구 사업 추진 지적도

다만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내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의 실적은 근처만 걸어 다녀도 사업성과로 포함돼 202만 명이 이용했다고 보고됐다.

지역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광안리해수욕장 스마트 미디어월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173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평가됐다.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로 휴대폰 충전과 야간 조명을 제공하는 스마트벤치 역시 유동인구를 이용자 수로 둔갑시켜 129만 명이 이용했다고 보고됐다. 평가가 주목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성과가 미미한 사업도 적지 않았다. 인천 영종도의 인공지능 실시간 버스 배차 사업의 경우 배차 성공률이 43.9%에 그쳤고, 경남 통영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2021년 신청자 수는 168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9.5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지방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특성에 따라 관련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활성화 되어야만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지역의 한 건축사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 국내 주요 스마트시티 현황

구분	단지명	위치
스마트 신도시	행복도시	세종시
	송도유시티	인천 송도
	판교신도시	경기 성남
	동탄신도시	경기 화성
	운정신도시	경기 파주
	나주 혁신도시	전남 나주
에너지 신산업	상암 DMC	서울 마포
	제로에너지단지	서울 노원
	제로카본그린홈	경기 일산
	제로에너지BD	인천 송도
	스마트 그리드스테이션	경기 구리
	제로에너지단지	세종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역형 집단에너지	강원 홍천
스마트교통 (ITS)	기파도카본 프리섬	제주도
	도로공사 교통센터	경기 성남
ICT 솔루션	교통정보센터	서울 중구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부산 해운대
친환경 물산업	파주 워터시티	경기 파주
	고령 스마트워터	경북 고령

추진함에 있어 각 개별 도시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공간 서비스가 기획돼야 하고, 여기에 지자체·기업·주민·지역 전문가(건축, 도시, ICT, 교통 등)들이 주도하는 거버넌스가 완성도 있게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축 전문가들도 지방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발언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해외건축 NOW - AIA Award for Excellence in Public Architecture

비전과 이야기 전달하는 디자인으로 도시 랜드마크 재정비 해

건축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한 번 건축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상시 사람들이 이용한다. 때문에 건축사는 설계에 앞서 건축물이 미칠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지역마다의 특색과 환경이 다른 만큼 사회 전체를 조망해 보는 거시적 안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건축사신문은 매년 발표되는 주요 해외 건축상을 훑아보려고 한다. 대체로 건축상은 시대적, 사회적 경향성을 담은 작품을 선정한다. 건축상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건축계가 지향하는 일종의 시대정신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에는 공공장소의 디자인적 우수성에 주안점을 둔 'AIA 공공 건축 우수상'을 소개한다.



역동적인 형태의 벨뷰 도서관(Bellevue Library)은 사용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내슈빌의 랜드마크다. 2010년에 발생한 대홍수로부터 지역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상징 역할을 했다. 사진=AIA

공공성은 건축과 떼어놓을 수 없는 화두다. 건축이 현재와 미래 거주자, 그리고 지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공공 건축은 취약한 커뮤니티를 포용하고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평등성을 담보해야 한다.

AIA 공공 건축 우수상은 우수한 공공장소 디자인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높인 건축사에게 수여된다. 금년도는 데이비드 M. 파울(David M. Powell)이 수상했다. 1991년 미국 테네시 주 내슈빌(Nashville)에 정착한 그는 건축과 음악이라는 두 가지 경력을 10년 가까이 병행했다. 내슈빌은 컨트리 음악의 도시, 미국 남부의 아테네라 불리며 미국 음반의 대다수가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다.

건축에 집중한 뒤로 그는 작곡과 유사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다.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연결고리를 밝혀 궁극적으로 완전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구조를 개발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작업 방식은 공공 건축과 커뮤니티 공간의 중요성이 높은 내슈빌에 적합한 방식이었다. 파울은 모든 작업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각각의 실제 디자인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프로젝트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의 비전은 벨뷰 도서관(Bellevue Library)과 리만 오디토



리만 오디토리엄(Ryman Auditorium)은 그랜드 올 오프리(Grand Ole Opry)를 해체하는 대신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현대적으로 변형했다. 유리 파빌리온으로 구 건축물과 균형을 맞춰 2015년 새로운 리만 오디토리엄으로 재구성됐다. 사진=AIA

리엄(Ryman Auditorium)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다. LEED 골드 인증을 받은 도서관은 2010년 약 천 년 만에 발생한 대홍수부터 지역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상징 역할을 했다. 이 도서관의 역동적인 형태는 사용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도시의 랜드마크다.

리만 오디토리엄 (Ryman Auditorium) 역시 오랫동안 내슈빌

의 영혼이자 테네시에서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 중 하나로 여겨졌다. 리만 오디토리엄은 1892년 건축된 그랜드 올 오프리(Grand Ole Opry)를 해체하는 대신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현대적으로 변형한 사례다. 유리 파빌리온으로 구 건축물과 균형을 맞춰 2015년 새로운 리만 오디토리엄으로 재구성됐다.

조아라 기자

LH, 철근누락 재발방지 '설계검증·감리 현장관리 강화 방안' 마련

구조설계검증단 운영해 구조안전 검증도 시행

▶ LH 철근 누락 재발 방지책

설계	설계품질검증단 가동, 설계단계별·공종별 설계 적합성 검토
감리	감리업체 본사의 현장관리 조직 운영, 감리원과 함께 나가 다중 점검
시공	주요 공종 시 영상기록,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검측으로 전환

무량판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부실 시공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국토교통부가 10월 중 발표예정인 가운데, LH가 설계부터 감리까지 건설 과정 부실·부정을 막기 위한 자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국회의원 LH로부터 제출받은 '철근 누락 발생 이후 LH가 수립한 개선안'에 따르면 LH는 설계, 시공, 감리로 구분해 관리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자체 방안을 수립했다.

특히 구조 안전 검증에 대한 별도의 조직을 꾸려 구조안전 검증을 위한 '구조설계검증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검증단은 외부 구조전문가로

주요 구조부 공사

직접 점검

영상 기록·디지털

검측 도입

구성해 착공도서에 대한 구조계산 적정성, 도면 적합성 등 구조안전에 대한 검증을 시행한다.

설계부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설계단계별·공종별 설계적합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용역사 평가를 통한 책임설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리부분에서는 현장관리조직의 강화를 꾀한다. 감리업체 본사의 '구조기술자를 포함한 현장관리조직 운영 의무화'를 통해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공사의 점검과 품질관리를 추진한다. 주요구조부 공사단계에서는 LH의 집중점검, 공사관리 강화를 통해 감리원과 감리사 본사조직과 함께 시공상태를 다중 확인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영상 기록 등 디지털 장치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철근, 레미콘, 매립자재 등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시공확인 시 영상 기록 검측을 통해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부실시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공확인 방식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검측으로 전환해 시공확인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관희 기자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사업지 '지분쪼개기·신축빌라' 난립 차단

10월 26일부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시프트)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재개발 사업지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이후에 신축된 빌라를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분양권 취득을 노린 건축행위와 관련해선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

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투지 방지대책'을 10월 26일 발표했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 적용처 주방/화장실/샤워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02)461-3000 www.FFR.co.kr

대표시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동원/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고등학교 외 다수

Feature Flooring

수상 그 후 ㉘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민간부문 최우수상 '컴포트 서울'

공공을 위한 소월길 연결로의 새로운 제안

두텁바위길과 소월길 사이 단절 잇는 새로운 공간

문주호 건축사 "후암동 새로운 마을길로 인식되길"

해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새로 지어진 건축물 중 탁월한 작품을 선정해 건축상을 수여한다. 심사위원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시가마다 건축문화를 선도했던 작품들은 주변 환경과 함께 잘 숨 쉬고 있을까? 대한건축사신문은 역대 수상작들을 다시 찾아 그 건축물들의 현재 모습을 살피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와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스물여덟 번째 작품은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민간부문 최우수상 '컴포트 서울'이다.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민간부문 최우수상 '컴포트 서울' 전경(설계 문주호 건축사, 경계없는작업실건축사사무소) 사진작가=신경섭·김양길·김희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厚岩洞) 두터운 바위가 있던 마을. 기자에겐 작은(아버지)집과 작은(크기가 작은)집이 모두 있는 동네로 기억된다.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그리고 사촌 누님들이 살던 동네엔 작은 규모의 집들이 많았다. 부모님께서는 구파발 집에서 출발해 통일로로 거쳐 서울역이 나오면 "이제 다 왔다"라며 뒷자리 나와 동생을 깨우셨다. 많아야 1년에 두세 번 하는 방문이었지만 작은집 가는 날은 그냥 좋았다. 서울 하늘 아래 유일한 친척 집 가는 날. 서울역 동편과 남산 사이, 마치 영화의 오버랩 장면처럼 도심에서 바로 작은 집들의 세상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연스러운 이어짐이 참 좋았다.

이곳 후암동에 새로 지어진 2023 서울시건축상 최우수상 수상작 '컴포

트서울'(문주호 건축사, 경계없는작업실건축사사무소)은, 도심과 마주한 소월길과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두텁바위길을 이어주는 건축물이다. 이 두 길 사이에는, 마치 도심과 주택가의 경계처럼 15미터 높이의 절벽이 있어 단절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건축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설계자 문주호 건축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후암동 마을에 절벽으로 단절되어 있던 소월길과 두텁바위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라면서 "기존 소월길 접근로들의 물리적 단차를 극복하는 단순한 장치의 성격을 넘어 누구에게나 열린 새로운 길이 되어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길 원했다"라고 말했다. 단순히 도심으로 접근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됐으면 한

문주호 건축사와의 일문일답



문주호 건축사
(주)경계없는작업실
건축사사무소

Q. 이 건축물을 설계하시게 된 과정과 설계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뒀던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프로젝트는 후암동 마을에 절벽으로 단절되어 있던 소월길과 두텁바위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존 소월길 접근로들의 물리적 단차를 극복하는 단순한 장치의 성격을 넘어 누구에게나 열린 새로운 길이 되어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길 원했습니다.

도시의 공간경험은 대부분 길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건축 역시 주어진 길의 환경 속에서 길과 공간의 관계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기존의 길과 공간의 단편적인 관계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새로운 길 자체로 만들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경험과 변화가 만들어질지 관찰하고자 합니다.

Q. 설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후암동과 소월로 사이의 15미터에 가까운 단차를 공간 구성적으로 어떤 이야기와 시퀀스를 배치해 연결할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자 중

요했습니다. 시공 난도도 높아 계획을 실현하기에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책임감과 그들의 전문성 덕분에 계획이 잘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건축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진 건축적 지향점이 있다면?

서울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이지만 건축의 공간적 지형은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간 이야기를 통해 도시의 지형을 새롭게 변화하고 축적하여 시공간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서로 관계 맺는 건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Q. 그 지향점을 이 작품에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지를 발견하면서부터 건축주와 함께 마을에 오랫동안 의미 있는 장소를 만들자고 뜻을 같이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마을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열린 길을 생각하고 후암동과 소월로를 연결하는 길의 역할을 하는 '컴포트 서울'은 마을과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콤포트서울에 갈 때마다 관찰해 보면 계단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후암동 사시는 어르신도 공간

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목표가 어느 정도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Q. 이번 수상이 건축사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시대정신을 고려할 때, 공공성과 상업성은 서로 대립하는 흑백논리가 아닌 서로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업성을 추구하는 민간 건축에서 공공성을 담아내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한 명의 건축사의 태도로서 증명하는 작업이었고, 이러한 생각을 공감해 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Q. 근래 들어 관심을 두고 있거나 설계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서울은 밀도의 도시이기에 하나의 작은 건축물 안에서도 수직적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직적으로 놓여있는 각각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건축언어로 묶여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점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현재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 존재하는 분리된 이야기를 수직적인 밀도를 유지하며 공간적으로 각각의 이야기가 충분히 개성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는 바람으로 해석된다.

이 길은 두텁바위길에서 출발하여 건축공간과 길이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공간을 지나 서울의 풍경을 마주하며 올라가게 된다. 최종적으로 남산과 서울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옥상 테라스에 도달하며 소월길에 도착한다. 같은 건축물 안에 여러 이야기가 담길 수밖에 없다.

지하 1층에는 기존 지형을 활용해 높은 층고와 유리 파사드를 계획했고, 지형의 단차와 부피를 활용해 1층 복층 공간 그리고 2층 외부 마당과 연결된 층고 높은 공간이 구성됐다. 문주호 건축사는 1층에는 외부 계단이 2층에는 골목길 풍경이 공간 분위기를 만들고, 3층부 터는 서울 도심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문 건축사는 이번 설계에 임하며, 주어진 길의 환경 속에서 길과 공간의 관계를 고민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길과 공간의 단편적인 관계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새로운 길 자체로 만들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문주호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정필 기자

MY 부동산 뉴스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확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대상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 대상은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이며 10월 18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 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2.8%, 장기일

반임대주택은 2.2~3.0%이다.

더불어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금융자문으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한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기금 대출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대출접수는 사업자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조아라 기자

휴막이(굴토공사)설계.지반조사.감리 상주 비상주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포함)

건축물내부확장공법(특허공법-휴막이(C.I.P))가 영구 지하벽체를 대체하는 경제적인공법

(주)양광엔지니어링 . (주)선샤인이엔씨

토질및기초기술사.공학박사 오민열 HP 010-5271-1977
경기도 안양시 관악대로 404번길 9, 2층 T. 02-2293-6800, F. 02-2299-1881
e-mail : sunenc2299@chol.com / webhard id : sunenc pw : 1234

I AM KIRA 신임 회원에게 듣는다 - 김예은 건축사(전라남도건축사회)

김예은 건축사 “의무가입은 큰 전환점...협회가 회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 창구 되길”

“고등학생 때 저는 친구들을 끄드려 옥상에서 연을 날리고 담임 선생님과 몰래 화약로켓 대회에 나가는데, 한마디로 공부와 거리가 먼 학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건축에 흥미를 갖게 된 건 도서관 서가에서 우연히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피터 Zumthor(Peter Zumthor) 등의 작품이 실린 책 한 권을 읽은 뒤였습니다. 거장들의 도면과 사진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고 도면을 트레이싱 해보며 막연히 건축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 시절부터 시작된 건축에 대한 관심은 건축 시공을 업으로 삼으신 아버지의 현장을 무작정 따라 다니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예은 건축사(전라남도건축사회)는 건축과의 인연에 대해 이렇게 운을 뚫었다. 좋은 기억이 발판이 돼 건축사가 되어 이제는 공간과 쓰임을 고민하는 김예은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과 개소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막연히 개소를 꿈꾸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두지 않았습다. 첫 직장에서 실무수련 후 학업을 더 이어가기 위해 퇴사를 했고, 이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학업이 불확실해지던 와중에 태어나 자란 고향 지역에 첫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의무가입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방소멸’이 화두인데요. 지역에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이주 정책의 파생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을 건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축전문인으로서 제역할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태어난 지역에서 배우며 활동하고 있는 지역 건축사인 만큼 지방소멸 완화 방안과 지방소멸에 따라 남겨질 공간의 쓰임들,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안 등을 탐구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건축을 통한 도시의 활력, 도시공간의 보전과 장소성, 건축 업사이클링 등 다방면으로 해결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사무실 개소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무실 운영과 협회 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갈 무렵부터 시작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건축사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협회의 기능과 회원 간 교류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의무가입은 큰 전환점입니다. 협회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성장과 미래를 다짐하는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더 많은 회원의 의견과 힘이 협회로 모일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협회와 회원, 회원과 회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 플랫폼과 행사, 체계적인 실무교육 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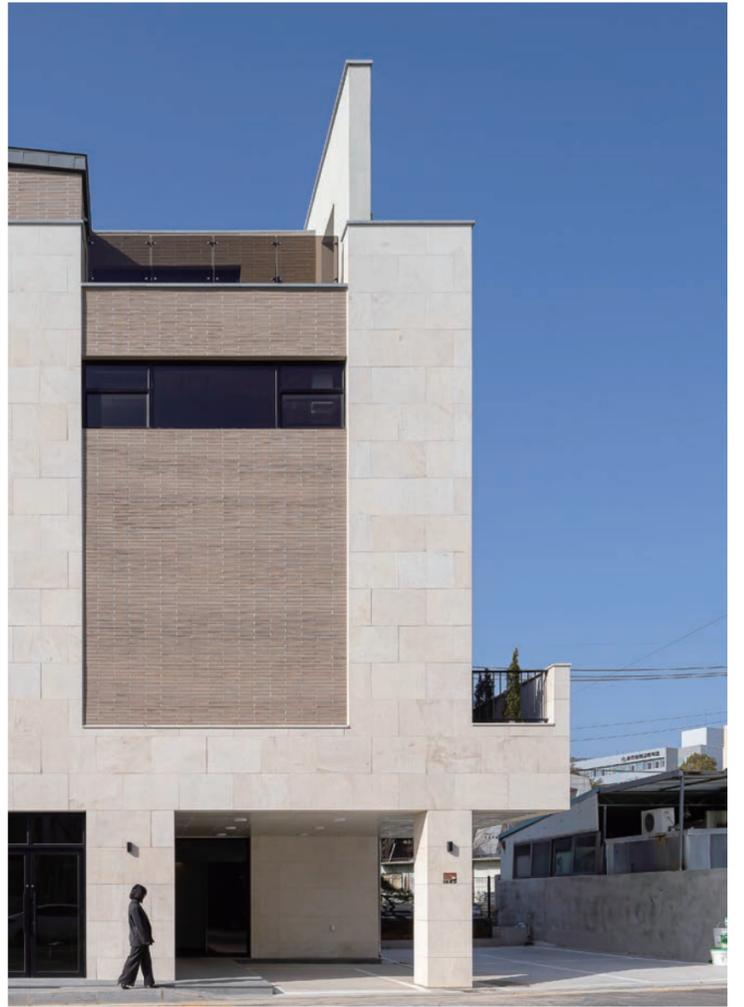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은 업무 대가, 무료 기획업무 등 많은 부분



김예은 건축사 사진=김예은 건축사

의무가입으로 큰 전환점 맞아
더 많은 회원의 의견과 힘이
모일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 되어주길

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공문화와 협회 차원에서 중점과제로 준비하는 만큼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저는 사용승인과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대한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낮은 업무대행 수수료와 짧은 기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수수료에 비해 법적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업무대행에 있어 충분한 검토 기간을 고려한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소 후 처음 진행해 2022년 말 완공된 유유재(悠悠齋). 고요한 집은 다양한 입면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건축물과 달리 극도로 절제된 입면 구성을 가진다. 사진=김성희 작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호황기를 지나 코로나19와 국제정세 변화라는 대외적 상황, 건축물 붕괴 사고 등 대내적인 상황 모두 안녕하지 못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세사기가 지난해부터 잇따라 벌어지면서 ‘건축왕’ 같은 명칭이 사용되는 등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퍼졌습니다. 더불어 건축사의 위신도 날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선·후배 회원이 함께 화합하고 전문 자격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며 안녕하지 못한 시대에 건축사업계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 민간발주 대가기준 마련 등 건축사업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이뤄나가며 새롭게 성장했으면 합니다.

조아라 기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수시기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 대행기관<국토교통부 지정>

▶ 협회홈페이지(www.kira.or.kr) -> 협회업무 -> 건설기술인관리 -> 교육훈련법 참조

□ 최초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

▶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 35시간

* 건설기술 업무 :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최초로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중·초급 : 70시간 - 특·고급 : 105시간
품질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 승급교육(전문교육)

직무구분	이수대상(현재 등급 기준)	이수시간
설계·시공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 계속교육(전문교육)

▶ 각 직무의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을 경과하기 전 이수

직무구분	이수대상	이수시간
설계·시공	특급 건설기술인 / ① 현장배치기술인 / ②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안전관리 계속교육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02-3415-6842~8), 시·도건축사회

REPORT - 부산연구원

‘도시 회랑’ 정체성 삼아 도시 공간 경험을 재구축한다면?

길 따라 도시가 구성된 부산, ‘도시 회랑’은 고유한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 공간 구조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에 근거해 세부 시행 계획 수립해야

건축과 도시설계(Urban Design)는 불가분의 관계다. 도시라는 지역 사회 안에서 건축물은 구성원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도시의 일부로 자리 매김 한다. 아쉽게도 산업화를 겪으면서 건축과 도시설계가 기능적으로 분화됐고 점차 그 간극이 벌어졌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여전히 건축적 섬세함을 필요로 한다. 도시만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는 기능적 구획이 아닌 디테일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한 건축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도시 풍경은 우리가 합의하고 만들어 낸 약속의 결과물이다. 그 풍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규칙을 만들고 실천하고 호오를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우리를 둘러싼 도시 환경의 변화 추이를 따라가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축적 섬세함을 고민하려 한다.

부산광역시가 도시 브랜드 리뉴얼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대외적 위상과 글로벌 성장 전략에 맞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도시브랜드 리뉴얼 선포식을 선포하며 올해를 부산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로운 도시브랜드 선포는 ‘부산 대도약’에 대한 다짐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Busan is good이라는 의미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산시의 새 브랜드가 부산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부산시의 행보에 맞춰 부산연구원은 부산의 도시 디자인의 방향성을 담은 ‘부산의 도시 디자인-도시회랑의 디자인 컨트롤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부산의 도시 디자인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 부산다움 표현을 위한 도시 회랑

부산시는 2000년대 들어 다양한 도시 디자인 계획을 시행해왔다. ‘부산다움 건축 만들기 5개년 계획(2003)’, ‘야간경관기본계획(2004)’, ‘도시경관기본계획(2005)’, ‘경관상세계획(2009)’, ‘도시디자인기본계획(2011, 2021)’ 등을 수립하고 ‘도시경

관을 위한 높이 관리 기준(2021)’ 설정,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부산 총회(2022)’ 등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련 행정 조직 설치 및 안정화, ‘부산 디자인 센터(2006, 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도시 디자인 조례(2008)’ 및 ‘경관 조례(2014)’ 제정 등 도시 디자인 관련 제도를 강화시켜 왔다. 부산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보고서는 도시 회랑(Urban Corridor)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 경험의 재구축을 제안한다.

부산은 자연 자원이 시가지 형성의 배경으로 강하게 작용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부산의 도시계획권 할구역은 총 993.5km²로, 녹지지역이 544.7km²(54.8%), 주거지역이 144.8km²(14.6%), 공업지역이 64.4km²(6.5%), 상업지역이 26.0km²(2.6%) 순이다. 산, 강, 바다가 이루는 자연자원이 많은 공간 환경 특성의 영향으로 용도지역 지정도 녹지지역이 대부분이다. 특히 길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공간 구조가 특징이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도시 회랑’은 길을 따라 길게 이어진 도시지역으로 길과 옆의 일정한 지역을 아우르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찾길, 물길, 숲길, 뱃길 등을 뜻하고 주변 지역은 길과 맞닿아 있으면서 길과 함께 작용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도시 회랑의 형성 방식에는 간접과 직접 형성이 있다. 간접 형성

방식은 긴 시간 동안 점진적 변화를 꾀하는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이용한다. 도시 회랑이 놓인 지역 특성과 어울리게 도시 회랑의 디자인 방향과 그 대상이 구체화된다. 반면 직접 형성 방식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공간 환경의 변화를 꾀한다. 변화가 예상되는 일정 지역을 직접 설계를 통해 도시 회랑을 디자인한다. 공모 방식을 통해 그 아이디어를 발굴하거나 사업 추진 주체를 선정해 그 지역의 변화를 주는 방식이다. 프랑스 파리, 중국 선전, 인도 바라나시, 영국 런던 킹스턴, 캐나다 캘거리 등에서 도시 회랑 디자인을 적용했다.

보고서는 도시 회랑이 부산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 공간 구조이며 부산만의 고유한 공간 이미지로 키워나가는 방안이라고 말한다. 부산은 자연스럽게 도시 회랑을 형성해왔고, 여전히 길을 따라 도시가 구성됐다. 다만 공공 생활 서비스를 골짜기 따라 길고 넓게 늘어난 시가지에 고르고 풍부하게 제공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접근이 어렵고 공공 생활 서비스 제공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도시 회랑의 유형 설정을 통해 도시 정책성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는 것.

SED(Sustainable Experience Design, 지속가능한 경험) 디자인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간 환경에서의 인간적 경험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추구한다. SED는 두 디자인 가치인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인간주의적 경험 디자인’이 결합된 개념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은 생태학적 측면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을 준다. 자연환경이 이룬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질서에 어울리는 모습을 지향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주의적 디자인(Humanistic Experience Design)’을 추구해야 보다 더 좋게 살기 좋은 공간 환경 구축이 가능하다. 이는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속적인 삶을 뜻한다. 즉, 자연 속에 있는 인간성의 존중, 자연을



도시 회랑 디자인 컨트롤의 기본 열개

자료=부산연구원



부산 도시 회랑의 미래 비전 공간 구상도

자료=부산연구원

배경으로 하는 인간적 척도 등에 따르면 이를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SED는 유전성(Heredity), 지역성(Locality), 인간성(Humanity)의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보고서는 장기과제로 회랑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한다. 도시 회랑 디자인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제7조 경관 계획의 내용 중에서 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해 도시 회랑 디자인에 대한 각각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기존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2023)’, ‘경관계획(재정비, 2022)’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글로벌 회랑도시를 목표로 글로벌 3축 회랑의 융·복합 허브 도시를 구상 중이다. 서부산 회랑권역은 백양산·승학산 등 산줄기 아래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 이룬 권역으로 하늘 및 해상 관문 회랑이다. 중부산 회랑권역의 경우 금정산·황령산·염광산 등 산줄기 아래 동천과 바다가 만나 이룬 권역으로 육상 관문 회랑이다. 동부산 회랑권역은 장산·달음산 등 산줄기 아래 수영강과 바다가 만나 이룬 권역으로 글로벌 수상 관문 회랑이다.

조아라 기자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0.30% 상승 서울·경기·세종 평균 상회해

전국 지가변동률이 전분기 대비 0.30%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월 24일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가 상승폭은 지난 2분기 상승 폭(0.11%)보다 0.19%p 더 늘었다. 2022년 3분기(0.78%)와 대비해 0.48%p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9월의 지가변동률은 0.13%로, 전월(0.11%) 대비 0.02%p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전년 동월(0.20%)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0.14%→0.39%)과 지방(0.06%→0.14%) 모두 2023년도 2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시도는 서울(0.11%→0.44%), 경기(0.16%→0.36%), 세종(0.15%→0.34%) 등 3개 시도다. 시·군·구별로는 용인(2.15%), 성남수정구(1.14%), 울릉군(1.03%), 군위군(0.86%), 강남구(0.85%) 등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조아라 기자



3,000 건축사 사용중!
허가권자지정, 상주, 해체, 석면 올인원!!

지역건축사회 특별특별 할인 친절상담 02 3462 1336

인터뷰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건설 건축사

이건설 건축사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우리 시대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20년만의 리마스터링 에디션 ‘건축의 무빙’ 재출간
근대 건축의 잊힌 인물의 이면 탐색하는 저서도 준비 중

2004년 출간됐던 ‘20세기 건축의 모험’이 20여년 만에 리마스터링 에디션을 선보인다. 데이터 유실로 안타깝게도 절판됐던 책이 새로운 제목과 디자인, 현재에 맞춰 개정된 내용을 더해 최근 재출간됐다. ‘건축의 무빙’이라는 제목으로 리마스터링 버전을 낸 이건설 건축사를 만나 봤다.

“뮤지션이 리마스터링 앨범을 발매하는 것처럼 기존 내용을 보강하고, 현재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보자는 콘셉트로 시작했습니다. 개정판인 만큼 ‘건축의 무빙’은 2004년부터 2023년 사이의 건축계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도시와 건축계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도시가 전염병을 더 확산시키는 게 아닌지 등에 대한 생각을 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성입니다. 건축계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설계 사무소만 보더라도 여전히 유리천장이 공고합니다.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해 이 두 가지는 지금의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지속가능한 건축이다. 이건설 건축사가 지속가능(Sustainable)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덴마크 아키텍트인 비아케 잉겔스(Bjarke Ingels)가 건축학과 학생들과 젊은 건축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더라고요. 왜 인기가 좋은지를 살펴보니 지속가능한 건축을 만 들어가는 아키텍트 같았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어떤 주장이라도 전부 포용하는 에스맨인 동시에 본인의 지향점을 관통시키기 위한 유동성을 보이는 거죠. 그런 아키텍트의 등장과 그에 대한 선호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해 필요한 건 ‘사유의 확장’이라고 말한다. 전작부터 일관되게 추구해 온 가치이기도 하다. 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사를 비롯해 건축사가 아닌 인물도 빼놓지 않는다. 공학적인 건축



이건설 건축사

적 사고를 벗어나 상상력과 문학적 감수성이 건축사에게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가 근대 건축의 잊힌 인물들의 이면을 탐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르가레테 리호츠키(Margarete Schütte-Lihotzky)를 다룬 책을 준비 중입니다. 리호츠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근대 건축이라는 복잡한 디자인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마르가레테 리호츠키(Margarete Schütte-Lihotzky)는 1920~30년대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던 디자이너로 프랑크푸르트 키친(Frankfurt kitchen)을 정립 보급했다. 프랑크



건축의 무빙

푸르트 키친은 합리적인 동선과 명료한 디자인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한 모델이다. 혁신적인 이 주방 시스템은 1920년대 말 프랑크푸르트에 건설된 공공주택에 8천 세트 가까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설 건축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오가며 자료 조사와 취재를 진행했다.

20세기의 대표적 건축 거장의 삶을 기록했던 이건설 건축사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은 누구일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디에베도 프란시스 케레(Diébédo Francis Kéré)를 꼽았다. 2022년도 프리츠커상 수상자이기도 한 케레

는 고향인 부르키나파소에서 흙한흙과 나무를 주재료로 삼아 학교, 도서관 등 공공 건축물을 지어 지역 사회에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케레가 고향 간도(Gando)에 지은 초등학교는 2004년 아가 칸 건축상(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을 받았다. 아가 칸 건축상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부르키나파소는 인구의 63%가 이슬람 신자다.

“케레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왜 건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케레는 아키텍트이자 사회 운동가입니다. 결핍 속에서도 치열한 고민 끝에 모두에게 품위 있고 훌륭한 공간을 제공했죠. 더욱이 지역과 함께 이뤄나가는 건축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우리는 아직 좋은 건축을 할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부유하고 미디어나 SNS만 봐도 건축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프란시스 케레는 이 시대의 모범이 되는 건축인 같습니다. 케레를 통해 우리가 어떤 건축인이 될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아라 기자

3분기 인허가 현황 살펴보니...인허가·착공 면적 감소, 준공 면적은 증가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32.8%·착공 44.2% 감소, 준공 8.1% 증가

금년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32.8%

감소, 착공 면적은 44.2% 감소, 준공 면적은 8.1% 증가했다. 금년도 3분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0,589천㎡로 전년 동기(45,533천

㎡) 대비 14,944천㎡ 감소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가 원인이다. 동수는 37,242동으로 전년 동기(48,881동) 대비 11,639동 줄었다.

전국 착공 면적도 16,279천㎡로 전

년 동기(29,176천㎡) 대비 12,897천㎡ 감소했다. 연립주택, 업무시설 등의 착공 면적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동수는 27,825동으로 전년 동기(36,241동) 대비 8,416동 감소하였다.

반면 전국 준공 면적은 34,373천㎡

로 전년 동기(31,800천㎡) 대비 2,573천㎡ 증가했다. 업무시설,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증가로 인한 변화다. 하지만 동수는 32,541동으로 전년 동기(40,167동) 대비 7,626동 감소세를 보였다.

조아라 기자

나도 한마디_생글생글

‘나도 한마디 생글생글’은 건축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의견, 기고를 쓰는 코너입니다.

66

경제성과 역사성, 친환경성 가치 담은 건물 재활용해 창작공간 만드는 시도 많아지길

99

저는 건축사가 꿈인 문정여자고등학교 학생인 노채은입니다. 영어 수업 활동 중 제품의 순도에 따라 재활용 난이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순도의 제품을 사용하면 재활용이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고순도 알루미늄은 다양한 물질과 혼합된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잘 재활용됩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건축분야 또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 설계한다면 지구를 보호하면서 건축물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한 번 사용한 건물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

를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를 만들 때 다양한 돌과 석회가루, 물을 섞는데 재료를 좀 더 연구하고 시멘트를 깔 수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폐유리는 유리섬유로 재활용되는 것처럼 더 많은 연구와 재료 개발을 통해 다른 건물에 재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건물에서 주변 환경과 가까운 고순도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프란시스 케레가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 작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학교, 공원, 병원 등의 공공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중 쿠두 지구의 부르키나파소 시에 위치한 소지 중고등학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멘트 부족을 고려하여 건물 벽은 효석 흙벽돌로, 앞외벽은 지역에서 자라는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장은 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멍을 뚫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고, 더위와 조명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환기가 되도록 건물이 설계됐습니다. 환경과 비용을 고려하여 가구는 현지 하드우드와 강철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생태 친화적인 건물의 최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건물 건축 시작부터 친환경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건물 외부를 플라스틱 병으로 만드는 대만 ‘에코아크’가 그 예입니다. 폐 플라스틱 병은 재활용의 순도가 낮아 재활용이 어렵지만, 다른 건축 재료와 비교해 친환경적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기존 건축 재료와 비교하여 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줄이는 미래 건축 재료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된 건물을 새로운 공간이나 재활용 건물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한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채은 문정여자고등학교 3학년



주목! KIRA 추천건축자재업체

아세아방재 설명미 상무 “승강식 피난기 ‘내리고’ 앞세워 재난 안전 확보 대명사로 자리할 것”

세계 최초 개발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내리고’ 발명
정부서 대피시설 인증, 협회 추천건축자재로 선정 성과
“R&D 지속해 국민 안전 보호, 재난대응 기업으로 도약”

약 30여 년간 소방산업 전문기업으로 소방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온 (주)아세아방재가 국가에서 인정한 화재대피시설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세아방재는 소방산업에서 기술혁신 사례라고 평가받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를 세계 최초로 발명하는데 성공했고, 현재는 차세대 화재대피시설 등 국민 안전 확보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R&D에 매진하고 있다.

아세아방재 설명미 상무는 “건축물 화재는 자칫, 탈출하지 못하고 내부에 갇히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동력으로 작동하는 ‘내리고’가 현재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제품개발과 보급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설명미 상무로부터 아세아방재의 무동력 피난시스템인 ‘내리고’부터 화재, 소방, 피난,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안전기구에 이르는 주요 제품 및 시스템, 그리고 기업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Q. 지난 5월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건축자재로 선정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는데, 어떤 제품이 수상하게 됐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개발 노하우를 집약해 만들어낸 신개념 대피시설인 승강식 피난기인 ‘내리고’ 제품입니다. ‘내리고’는 고층건물이나 아파트의 화재 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수직탈출할 수 있는 무전원·무동력 시스템입니다. 지난 2008년 세계 최초로 승강식 피난기를 발명한 후 현재는 국민보급형 제품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번 대한건축사협회 추천건축자재 선정은 신기술을 적용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아파트 대피시설 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성능인증에 이르기까지, 내리고 시스템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내 기술연구소에서 국가 R&D 과제 등을 통한 ‘국민보급형 피난기’ 개발과 장애인 인명안전대책 솔루션, 재해취약계층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재 대피시설로 제품개발을 지속해왔는데 그간의 노력과 우수성을 인정 받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2023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국무총리상도 수상해 보람을 느낍니다.

Q. 무동력 승강기 ‘내리고’는 대한민국 기술로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지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 자산이라는 평가입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내리고’에는 어떤 기술력들이 집약되어 있는지요.



(주)아세아방재 설명미 상무 사진=아세아방재

‘내리고’ 승강식 피난기는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무동력 시스템입니다. 즉, 일체의 에너지 공급 없이 무게 추 중력 작용으로 움직이는 무동력 엘리베이터 원리를 지닌 것이죠. 자연법칙으로 작동하는 어찌보면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그래서 더 안전하고, 신뢰성이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온도나 습도 등 기후변화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소재, 내식성 강한 핵심 부품으로 제작돼 반영구적인 제품이기도 합니다. 재해에 취약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해 유아 역시 버튼만 누르면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어 접근성, 사용의 편의성도 우수합니다.

Q. 아세아방재는 ‘안전이 생명이야’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주거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면.

무엇을 하든 사람이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화재 발생 시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나 홀로 집에 있는 노년층 세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세대에서 종래 써오던 완강기나 사다리 같은 피난기구를 가지고는 노년층의 안전 확보가 어렵습니다. 노약자가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승강식피난기를 의무 설치하는 제도 개선으로 거주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시장에서 ‘내리고’ 승강식 피난기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화재 방재 시설의 경우 국민안전을 고려해 성능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빠르게 제도화하고 있는데요, 승강식 피난기와 같은 제품군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화재대피시설로 사다리가 주로 사용되어 지거나, 대피공간만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화가 감지된 것은 지난 3월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의 화재, 소방, 피난 등의 방재 안전 성능 관련법 기준을 초과해 개선하는 경우 건축심의 시 용적률 5%를 추가 제공하는 방재 안전 인센티브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 고층화에 발맞춰 재난 약자를 위한 규정과 제도가 재정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세아방재에서도 휠체어 동반이용자 승강식 피난기를 제품화 하는 등 제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전원·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내리고’ 사진=아세아방재

Q.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신제품 출시, 기술개발 방향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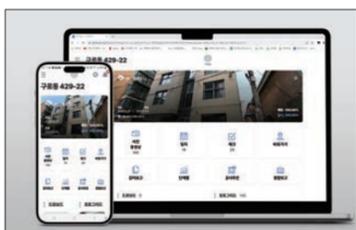
아세아방재는 27년 역사의 소방산업 분야 전문기업이자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기업의 대명사가 되고자 합니다.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 일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개발된 제품 중 내리고 승강식 피난기는 혁신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요로 입증되고 있죠.

하지만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 등 재해취약계층에 대한 제품개발은 기술과 연구의 진전이 있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아세아방재에서는 이처럼 모두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박관희 기자

감리자 필수앱 자리 잡은 ‘아키엠’, 적용 현장 2만7000개 돌파

최근 필수확인점 서식 및 UI 업데이트 완료, 탄소저감량 버튼 생성도
아키엠 실무교육 건축사회관서 매월 실시...V1 서비스 24년 종료 예정



아키엠 UI 변경 및 신규 기능 업데이트 모습 자료=씨엠엑스

국내 최초 스마트감리앱 개발사 씨엠엑스가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 지난 9월 기준 아키엠 적용 현장 2만7천개 돌파와 더불어 아키엠 UI 변경과 신규 기능 업데이트를 최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씨엠엑스 류성호 CTO는 “아키엠의 V2 기능 개선과 합

계 UI 등 홈 화면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으며, 필수확인점 서식도 업데이트 했다”며 “V1은 2024년 서비스 종료된다”고 말했다. 씨엠엑스는 지난 5월 대한건축사협회와 공사감리 디지털화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건축현장 공사감리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제안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 수행하는 공사감리업무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아키엠 실무교육(11월 17일, 12월 15일)을 건축사회관서 매월 실시 예정이다.

씨엠엑스 이기상 대표는 “최근 공사현장 철근 누락 사태는 시공과 감리 검증 과정의 총체적 부실로 확인

된 가운데, 그중에서도 육안으로 검사하고 형식적으로 검증서류를 맞추는 문제가 걸로 드러난 것”이라며 “감리의 투명성과 질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증서류 작성이 수기식 종이서류 방식에서 디지털로 속히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씨엠엑스가 2016년 출시한 스마트감리앱 아키엠은 현재 전국 구축 건축사 수가 2천 명을 돌파하는 등 연일 상승세를 높이며 공사감리의 디지털화를 선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씨엠엑스는 2020년 3월에는 국내 최초 SaaS형 검증협업플랫폼 ‘콘업’을 출시했다. 이 앱을 통해 시공기와 감리자는 동일플랫폼에서 실시간 전자문서형 설계도와 비교하고, 공종별 검증서를 실시간 작성해, 검증(중요 공종)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안내

2023년도 현재 관리받고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경력관리비를 납부하시고 효과적인 경력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관리 납부방법
 - 온라인 : 건설기술인 인터넷경력신고 홈페이지(work.kira.or.kr)
건설기술인 인터넷증명발급 홈페이지(cert.kira.or.kr)
 - 오프라인 : 본 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통한 납부

- 미납자에 대한 제재
 - 2012년도 이전의 연회비를 미납하였거나, 정기관리자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 타 수탁기관 이관 및 경력수정, 경정 불가

-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 02-3415-6842-8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드립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김도동호회 정기 승단 및 승급 심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김도동호회는 지난 9월 2일 제1회 정기 승단 및 제 3회 정기 승급 심사를 개최했다. 승단 심사에는 5명의 회원이, 3급·5급 승급 심사에는 3명이 응시해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이날 김재록 서울시건축사회장이 참석해 심사에 나선 회원들을 격려했다. 김도동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활동 모습을 담은 동영상 공유하는 한편, 상시 회원을 모집 중에 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음악동호회 정기모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음악동호회가 9월 22일 정기 연주 모임을 가졌다. 음악동호회는 매월 2회(둘째·넷째주 금요일) 합주실에 모여 함께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모임을 갖고 있다. 지난 7월 28일에는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리트리움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음악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음악동호회는 연중수시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하나은행·하나카드와 MOU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10월 12일 하나은행(주)·하나카드(주)와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전용 제휴 금융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원이라면 건축사 전용대출, 신용보증재단대출, 퇴직연금 등 개인별 맞춤 자금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 및 상담이 가능하며, 회원 전용 방문 금융상담과 외화 환전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회원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 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하나기업카드’ 제휴 상품을 만들고 연회비 없이 이용금액의 0.5%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2023년 하반기 건축행정 관계자 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10월 18일 울산건축사회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건축 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관내 건축행정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시·군·구 건축업무 담당자 12명과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김원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 6명이 참석했다. 논의된 안건으로는 ▲(중구) 건축물해체시 허가 및 신고대상 구분 철저요청 ▲(동구)가설건축물 관련 건축조례 개정 건의 ▲(울주군)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울산시의 협조사항 안내 순서로 이어졌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감리 의무교육 실시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10월 12일 울산건축사회관 5층 강당에서 회원 1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감리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교육은 의무로 진행되는 만큼 전 회원들이 참석 대상이 되어 10월 12일과 25일 두 차례 거쳐 개최됐다. 김원호 울산시건축사회장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감리 제도를 개선코자 시행하는 교육이므로, 모든 회원이 감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제11회 경기건축문화제 성황리 개최



경기도건축사회는 부천시와 함께하는 ‘2023 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 21일부터 23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건축문화제는 경기도와 경기도건축사회 등 9개기관이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최대 건축문화 축제이다. 올해는 경기도건축문화상, 공공디자인공모전, 건축사 사진 작품전 수상작과 부천 미래건축특별전, 고등부 우수 작품전 등 작품전시회가 진행됐다.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들은 공간의 집합체이며, 따라서 공간이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시대를 대변하기도 한다”며 “공간의 미래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문화제를 통해 미래 건축의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하고자 한다”고 대회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2023 강원건축문화제 진행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지난 10월

18일 속초 마레몬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3 강원건축문화제’ 개막식을 가졌다. 개막식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을 비롯한 내빈 30여명과 도내 시·군 건축사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강원건축문화상 공모전 시상식, 테이프 커팅, 전시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열린 공모전 시상식에는 일반부문 건축사 17명과 학생부 2팀, 어린이집그리기 대회 8명이 수상했다.

충청북도건축사회, 2023 충북건축문화제 성료



충청북도건축사회는 2023 충북건축문화제가 충북스케이프(ChungBuk-Scape)를 주제로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대전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승인 공모전, 충주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선정한 충주 10대 현대 건축물 투어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근희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인생본실), 연동의 건축사(주.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황태주 서원대 교수가 충북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충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충남건축디자인문화제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는 10월 12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충남건축사회 정광영 회장 및 임원, 건축관련 대학 교수, 관련 공무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제’ 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뿌리 근(根)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해 건축을 접하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축제 형식으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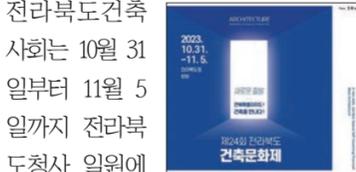
충청남도건축사회, 국토안전관리원 충청본부와 ‘건설안전’ 업무협약



충청남도건축사회는 10월 17일 충청권건축사회(충북, 대전, 세종), 국토안전관리원 충청본부와 함께 건설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서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광영 충남건축사회장은 “이번 협약이 충청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상호협력을 통해 관련 기관들이 상호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제24회 전라북도건축문화제 개최



전라북도건축사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라북도청사에서 ‘제24회 전라북도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건축사회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사)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건축문화제는 ‘새로운 출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을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전라북도건축문화상 수상작 전시와 국제 건축 작품전을 통해 전라북도의 우수한 건축물과 중국·일본 건축물을 소개한다. 아울러 ‘일상과 꿈을 담은 내 집 짓기’ 설계사례 세미나로 땅 찾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설명하고,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 체험 ‘가상현실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일본 ‘JIA 가고 시마협회’ 방문 교류활동 펼쳐



전라북도건축사회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큐슈 ‘JIA 가고시마건축가회’를 방문해 건축문화 교류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전북건축사회 방문단은 먼저 가고시마현청을 방문, 가고시마현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거 복지정책 중 현립 공용주택 개발계획을 듣고, 방향 및 추진 일정과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가고시마 시청을 방문해 인구 감소에 의한 초등학교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의 통합과 주민 연계 시설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전문가 집단인 건축사로서의 역할을 공유했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일본의 건축정책 방향을 참고해 더딘 지역 발전이 낙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라북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경상북도건축사회는 지난 10월 13일 김천 포도CC에서 경북건축사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경북건축사회 이재철 회장과 임원, 시도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해 회원 및 골프동호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재철 경북건축사회장은 “회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돼 뜻

깊다”며 “앞으로 회원들이 참가하는 골프대회가 협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을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경남현대건축동호회, 하반기 부산지역 답사



경상남도건축사회 경남현대건축동호회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하반기 답사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양일간 알로이시오기지(우대성)와 AREA6(오승태), P-ARK(에이포인트), 조현화량(안용대), 투트라이앵글(이기철), AOP나사리카페(오신욱) 등을 방문하였다. 둘째 날 답사에는 설계자가 동행해 설계 의도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상남도건축사회 경남현대건축동호회는 하반기 중으로 회원 세미나와 백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제21기 도민건축대학 진주시 답사



경상남도건축사회가 주관한 ‘건축사와 함께하는 제21기 도민건축대학(건축물 답사)’이 10월 20일 진주시에서 진행됐다. 오공환 경남건축사회장은 “도민건축대학 답사를 통해 우리 일상 속 자연과 공간들을 탐방하며 자연·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건축을 통해 진주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경남건축문화제가 개최되는 진주시를 답사지로 선정하여 진주시 총괄계획가(최삼영)의 설명과 함께 진양호 우드랜드를 시작으로 유등 전시관, 물빛나루, LH 전시관,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진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수승산 부자마을 등 문화적인 요소가 담긴 공간을 답사하며 마무리됐다.

사천시지역건축사회, 인재육성장학금 300만 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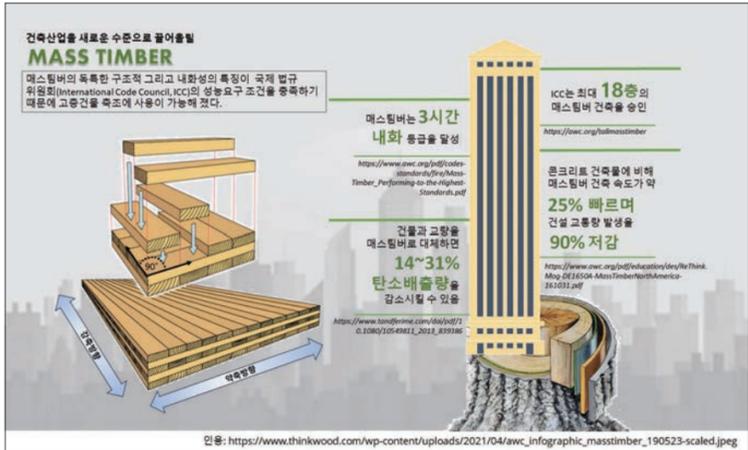
경상남도건축사회 사천시지역건축사회는 10월 6일 사천시청을 방문해 (재)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박동식)에 3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사천시지역건축사회는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900만 원을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사천시지역건축사회 이상만 회장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목조건축 산책

이동흡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객원교수
heub2575@gmail.com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② 새로운 수준으로 건축 산업을 끌어올릴 매스팀버(Mass Timber)



건축 산업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매스팀버의 특성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11월 1일 기준 5,183만 명¹⁾이다. 현재 매우 낮은 출산율,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도시 주변의 산업 과밀화로 인구 도시 집중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서울의 인구밀도는 15,865명/㎢(2020년 기준)로 전국 평균 516명/㎢보다 30배 이상이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6%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²⁾이라는 UN의 예측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주택 공급은 고밀도, 고층 건물로 도시 구조물이 주로 철골과 콘크리트로 건설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시멘트의 생산과 사용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³⁾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 건설 추세가 지속되면 건설 탄소 배출량도 따라서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목조건축이 이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대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지금까지 목재는 고밀도·고층 건물의 자재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매스팀버(Mass timber)의 발전으로 목재가 구조적으로 기존의 건축재료와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매스팀버는 기존 목조건축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주택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조건축은 기존 콘크리트나 강구조 건축보다 빠르고, 깨끗하고,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따뜻함, 음향학적, 그리고 구조적 효율 면에서 주목할 만한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매스팀버를 대표하는 CLT (Cross Laminated Timber)는 다양한

등급의 침엽수재를 최적화하여 강도가 높고 예측이 가능한 패널로 개발된 목질 판상(패널) 제품이다. 제조 과정에서 웅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은 핑거조인트(finger joint)로 제거되었고, 이를 이어 붙인 라미나(판재, 소각재의 층재)를 섬유 방향에 교대로 배향하면서 고압 하에서 적층 접착된 구조용 판상 제품이다. 팽창 및 수축이 최소화되었고 안정성 및 구조적 용량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목조건축이 도시건축 유형학으로 들어가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건설 방법은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현장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줄여준다. 또 단열 및 방음 성능이 우수하며, 건강 및 웰빙 혜택을 갖는다. 도시 지역에 점점 더 집중되는 현대 사회에서 매스팀버로 구성된 건물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의 기초가 되고 있다.

도시주택에 대한 엄청난 수요, 건축 산업에서 막대한 에너지 사용과 그로 인한 탄소배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건설 산업이 국가의 전반적인 GDP에 미치는 중차대한 영향력을 건설 산업은 이제 직시해야 한다. 건축을 사랑하는 외부 입장에서 왜 건설 산업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풀어갈 해결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장려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건축적 영역 안에서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혁신적인 건축재료 채택을 방해하는 관성은 이제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목소리를 모으고 연구와 혁신을 향한 태도로 건축 산업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답사수첩 |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림(士林)의 원조, 도동서원(道東書院)



도동서원 전경

2019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도동서원(道東書院)은 동방 오현(五賢)의 으뜸으로써 문묘에 배향된 한훤당(寒軒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을 향사하는 서원이자,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 중 하나이다. 1568년(선조 1년) 김굉필의 고향인 현풍에 향중 사림들에 의해 건립한 쌍계서원(雙溪書院)이 사액과 서적을 하사받은 것이 시초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서원이 소실되자 1604년(선조 37년) '보로(甫老)'로 개명하여 중건한 후 1607년(선조 40년)에 재사액의 명을 받았으며, 1610년(광해군 2년)에 '도동(道東)'으로 재사액 현판을 걸고, 위패 봉안식을 올렸다.

도동서원은 입지와 경관, 그리고 건축에서 한국 서원을 대표하는 곳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어서, 1963년 도동서원 강당과 사당 및 장원(牆垣)은 보물 제350호로, 2007년 10월에는 신도비, 은행나무를 포함한 서원 전역이 사적 제488호로 지정되었다.

도(道)가 동(東)에서 꽃피다

김굉필이 남긴 실천 도학을 도동서원에 구현한 한강 정구는 퇴계 이후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김굉필의 외증손자였다. 정구는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曹植)에게 사사했고, 퇴계와 남명학파의 학문을 통합하고자 힘썼다.

정구는 대니산(戴尼山) 아래에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를 지닌 도동서원을 창설하면서 후학들이 도동의 의미 체득과 전통 전승을 위하여, 서원의 입지·원규·제향·건물 배치 그리고 각종 석물(石物)과 건축의 디테일까지 기획하였다.

도동서원은 우리나라 건축물 배치로서는 보기 드문 구조이다. 뒤로는 대니산이 있고 앞으로는 낙동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입지 조건에 동북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형식이다. 이는 주변의 산수 및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굳이 남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원은 전

면으로 평야와 백사장 그리고 낙동강이 흐르는, 시원하고 넓게 열려 있는 지형을 갖춘 곳이다.

도동서원의 전방 경치를 보기 위해 건립한 누각이 문루(門樓) 수월루(水月樓)이다. 도동서원은 경사가 급한 산기슭에 지어졌으므로 굳이 이층 누각이 없어도 전방 경치를 즐길 수 있었기에, 1846년(헌종 15년)에 수월루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누각이 없었다. 수월루라는 명칭에서 '수월(水月)'은 도동 서원의 전방 경관 해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는 일종의 텍스트이며, 도동서원 전방 경치의 의미는 '수월'에 대한 해석으로 풀이될 수 있다.

도동서원은 조선 시대 서원 건축 공간의 전형성이 가장 우수하게 표현된 서원으로 평가된다. 한국 서원 건축 공간의 기본 배치는 강학 공간을 앞에 두고 제향 공간을 뒤에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이다. 규모를 갖춘 서원은 문루로 대표되는 유식(遊息) 공간을 서원 진입 부분에 추가한다. 한국 서원 건축의 전학후묘 배치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지형을 활용한 것이다. 높은 위계의 건축물이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위계적으로 높은 권위를 상징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학후묘의 공간 배치는 전후 상하를 꿰뚫는 종적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적 건물 배치로 완성된다.

수월루 아래 외삼문을 지나 돌계단 위에 서원 중문에 해당하는 환주문(喚主門)을 만난다. 계단에서 올라다보면 담장이 강학 공간을 모두 막아서고, 환주문 좁은 문안으로 도동서원과 강당 중정당 현판만이 부각된다. 바로 한국 전통 건축의 차경 기법이다. 서원의 중심 공간인 강학 공간 현판에 도동서원의 특성과 교학 정신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현풍에서 낙동강 따라 동쪽으로 대니산 넘어가는 중턱의 '다람재'에 올라서면, 산 아래 '도동서원'이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현재는 터널이 나면 서 다람재에 오르지 않게 되었다.

도동서원은 한 해 네 번은 찾아와야 제대로 보인다고 한다. 사당 앞 모란꽃이 붉은 알리고, 여름 석 달 동안은 배롱나무 붉은 꽃이 강렬하다. 가을엔 정구가 심은 서원 앞의 400년 넘은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겨울엔 흰 눈이 내려앉은 서원의 모습이 정갈하다.

출처 : 디지털달성문화대전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서원 내부에서 본 수월루

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보도자료"
2) United Nations,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Highlights (New York, United Nations, 2014).
3)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and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Trends in Global CO2 Emissions, 2016 Report (The Hague, PBL Publishers, 2016), p.64.

다시 첫마음으로!!!

건축과 삶

강영찬 건축사
바른건축사사무소
(충청남도건축사회)



추석 즈음에는 커다란 우리들만의 리그가 있다. 바로 건축사시험이다.

2000년부터는 5월에도 시험을 보지만 본인의 경우만 해도 1년에 한 번인 시험이 추석 전후에 있어서 명절이 반갑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힘겨운 건축사시험이 있었고, 12월에는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필자의 경우 다행히 여러 번의 시험 끝에 합격

하여 지금은 개업한지 10년을 향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가끔 건축사 신문에 실리는 시험공고를 보면 어느덧 무덤덤해진 하루하루의 일과가 부끄럽게 느껴진다.

와이프의 함박웃음과 축하 문자가 가득한 휴대전화로 합격을 확인하던 아침(이름만으로도 서로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있었다)을 시작으로 건축사 자격번호를 읊조리면서, 사무소 이름과 명함 디자인, 사무소 자리를 찾아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그때의 상황은 개업하신 건축사 모든 분들에게 가슴 뛰었던 순간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무실 문을 연지 10년을 향해 가는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

이 있었다.

춧발잡히고 대통령의 탄핵, 세계적인 한류열풍, 수많은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바이러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와 원자재 가격 폭등, 우주로의 도전, Chat GPT 등 인공지능과 같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정신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한 번쯤은 나를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10여 년 전 시험에 합격하고 사무소를 개업한 이후에 사회의 변화에 맞춰 나를 담금질하기보다는 복잡해지는 법과 어려워지는 경제만을 탓하지는 않았던가. 예전의 오래된 지식을 잣대로 기준 삼아 새로운 니즈를 맞추기 어렵다며 회피하지는 않았던가. 일이 없다며 사회적인 불만과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 하루하루가 희망차고 무엇이든 다 할 것 같던 그때의 생생하던 나로 말이다.

'채근담'에 "역경과 곤궁은 효절을 단련하는 도가니와 망치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 스스로의 변화를 원한다면 나를 힘들게 해서라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업하면서 사무실 도장을 만들 무렵 짙은 도장이 새겨진 작은 책갈피가 있다. 그 책갈피에는 <첫 마음>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첫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무실에서 나를 반겨주고 있다. 개업할 때의 상기되었던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첫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면서 조금은 불편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 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여 년 전에 멈추어버린 "나"로 계속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시로 보는 세상

한 명 이후

- 배진우

우리 집은
그 거리 끝이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
빈집에서
높은 거리에서
갈거리 찢긴 편지에서

방에서는 어느 곳에 서 있다가
조금만 발을 옮겨도 가까운 창이 달라졌다

지붕 위 그림자가 스치고 지붕 위 색을 더하고
아픈 곳은 자주 자리를 옮겼다

한 명이 살았고

한 명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

빛을 오래 가두고 싶었던 건축처럼

- 배진우 시집 '얼룩말 상자' /
민음사/ 2023년

우리는 별거숭이 임금님의 우화를 알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하는 말에 사람들은 쉽게 속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을까? 이 시인은 세계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어화 하고 있다. 그는 주장하지 않는다. 실재하지 않는 것들을 구조화하기 위해 단어와 단어의 사이를 지연시키고, 주어와 목적어를 병치시키며 공간을 한없이 늘리기도 한다. "빛을 오래 가두고 싶었던 건축처럼".
(함성호·시인)

| 발언대 |



최지안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이안서우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로 신설된 소방관진입장 규정이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기술적으로 삼중유리 이상의 열관류율을 요구하면서 피난규칙에서 규정한 소방관진입장은 이중유리까지만 허용했기에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관진입장에 한해 열관류율 기준을 완화했다가 현재는 진입창을 삼중유리까지 인정하는 등 수차례 개정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는 복합적인 조건의 문제를 한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단편적인 법 개정으로 다양한 상황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 제정된 건축자재 등 품질관리 기준에 의해 이제 모든 현장에서 외벽복합 마감자재의 경우 실물모형실험을 요구하고 있다. 외단열을 권장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건축외장이 복합자재이고 외부 단열재로 습도에 약한 불연 단열재 선호도가 낮으니 많은 현장에 적용될 것이다. 새로 실물모형시험을 해야 한다면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고, 자연스레 실물모형시

험을 통과한 표준 방식의 적용이 유도되면서 건축사들의 재료와 디테일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위축시킬까 우려스럽다. 포비아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은 미처 예상치 못한 많은 부차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은 시장의 혼선이다. 시장에서 수용하고 대안을 마련하기까지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데, 기술발전에 투자를 유도하고 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의 뚜렷한 방향 제시와 단계적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사실 건축법의 특수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대부분 대상 자체가 개정 이후 신축 시설에 해당되기에 절대 다수인 기축 시설은 제외된다는 점 때문이다. 노후 건물이 가진 수많은 문제는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신축 건축물에 지우는 건 자칫 문제의 간단한 해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를 시행하는 방식은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 정량적인 방식이 선호되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을 따지자면 수치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시스템 전체를 바라보는 전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선의에 대한 의심도 아니다. 다만 불완전한 법령의 개정과 이로 인해 벌어지는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본래의 의도대로 실효성을 가지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방향과 속도에 있어 다수가 공감하고 수긍하는 과정이 아쉽다. 개정 법령이 불합리하게 여겨진다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된다. 직면한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과 안전 이슈는 더 불거질 것이다. 장기적인 방향성과 이를 구현할 단계적 계획, 다각적인 검토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령의 복합성과 대립성

건축은 사회적 행위로서 수십 가지 법령과 연계되어 있는 데다 매년 다른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해석과 적용이 특히나 까다롭다. 일례로 제천스포츠타워 화재

포토 에세이

소원을 이루는 중정속 석탑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갑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도 정점을 향해 마무리해 갑니다. 그 이듬을 위해 팔공산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관봉을 향해 갑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고행의 길을 가듯 관봉의 석조여래좌상을 향해 힘겹게 올라가다 보면 하단의 대중공양간에 이르게 됩니다. 한숨을 돌리며 공양하고 힘을 내 다시 올라갑니다. 상단의 갓바위 석조여래좌상에 이르기 직전에 있는 중단의 대웅전 앞에는 3층 석탑을 중심으로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작고 소박한 중정과 만나게 됩니다. 석탑을 돌며 소원을 비는 이들의 작은 마음이 정사각형의 중정속으로 모아 소원을 하늘로 전달하는 듯합니다. 이 중정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해의 다짐과 목표를 정리하며 못다 이룬 소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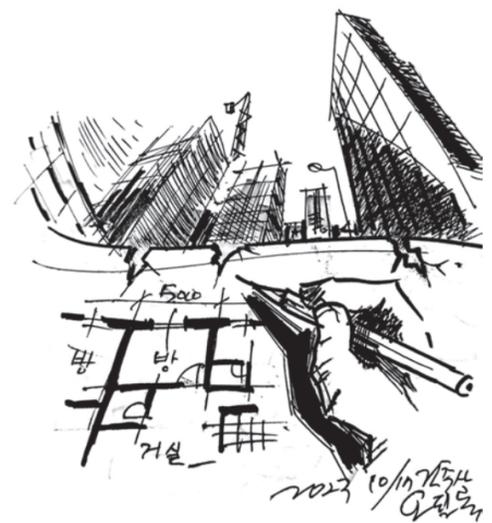
정익재 건축사 · KN 건축사사무소



|| 건축만평 ||

오필록 필로그 건축사사무소

건축산업 악순환의 시작점...
합리적인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마련 시급!!!



16,600부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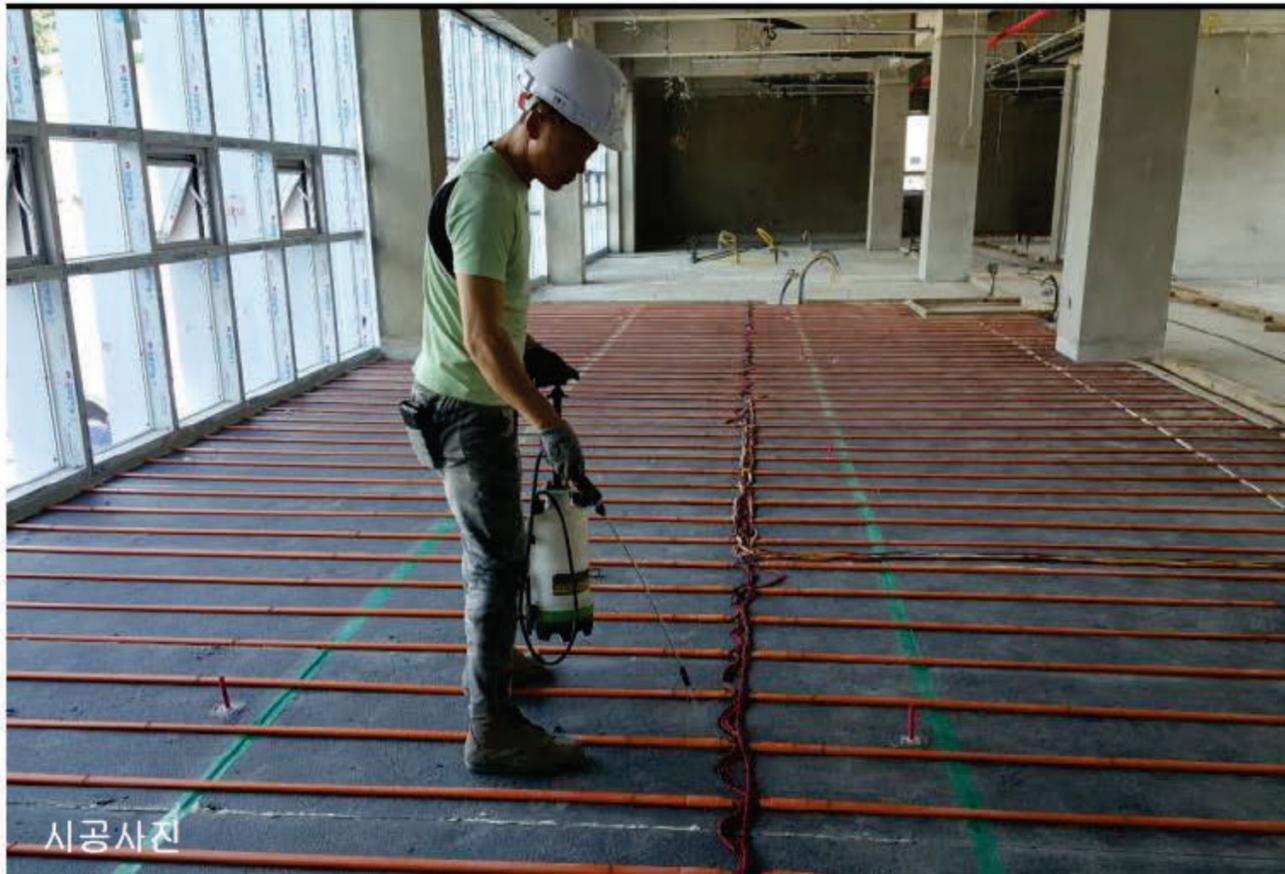
THE ARCHITECT NEWS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인 석정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박정연 인쇄인 박장희·홍정도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 편집출판국 | www.ancnews.kr
안내 및 광고신청 : 02) 3416-6962-7 팩스 : 02) 3415-6899 이메일 : news@kira.or.kr

2006년 9월 9일 창간 / 2009년 5월 8일 등록번호 서울 도09707(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시공사진



시공사진



서울대학교 기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숙사



강남대학교 기숙사



화계선원



광주 중앙교회



서초동 사랑의교회



홍천 힐드로사이CC



오송 식약청



용인 한국학연구

한국학 연구원 빌리엄 촬영
JAEWON PICTURES

ELECTO^{SUPER} (주)한진테크
HANJIN TECH CO.,LTD.

본사: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두골안길 65
Tel: 031.366.2325(대) Fax: 031.366.0615

E-mail: electo282@hanmail.net
Homepage: www.electo282.com